

[25 (3월)교육청 6번]

1. 6.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것은? [3점]1)

서술형 평가

◎ 문제 :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성적 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일상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해악 금지의 원리를 준수하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나) 성적 관계는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본 원리들이 준수되면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가 허용된다고 보며, ㉡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므로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 부부간 성적 관계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가)와 (나)는 모두 ㉤ 성적 관계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5년(5월)교육청 6번]

2.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

기술이며, 이를 습득하려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사랑받는 이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능동적 갈망이며, 생산적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보다 사랑할 줄 아는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 사랑에 대한 지식은 배움의 노력 없이도 저절로 습득된다.
- ②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 ③ 사랑은 능동적 활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다.
  - ④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
  - ⑤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26년(6월)평가원 12번]

3. 12.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가) 성적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동반할 수 있기에 부부간에만 정당화된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


(나) 성적 관계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상호 간 합의와 사랑이 전제된다면 출산과 상관없이 정당화된다.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과 결부된 성적 관계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 ①(가):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②(가): 쾌락을 동반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③(나):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성적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다.
- ④(나): 성적 관계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만으로 정당화된다.
- ⑤(가)와 (나):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

[25년(7월)교육청 6번]

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지 결코 지배의 소산이 아닙니다. 사랑이 지배의 관계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존경이 필요합니다. 존경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경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랑은 받은 만큼만 주거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을 주어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고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①사랑은 두려움이나 외경에 근거한 존경으로부터 비롯된다.
- ②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때 완성된다.
- ③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위한 선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 ④사랑은 자유를 토대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다.
- ⑤사랑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26 (9월) 평가원 6번]

5.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5)

우리 학생들에게서 량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은 실존 문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을 사용할 능력을 잃고 단절된 상태인 분리는 고립을 유발하고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게 되지요.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인간 사이의 합일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유지하는 힘이지만, 모든 합일이 곧 성숙한 사랑은 아닙니다. 상대를 자기에게 속한 일부로 여기는 방식의 합일은 사랑의 미성숙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개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음을

- ①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 나올 수 없다.
- ②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합일도 불가능하다.
- ③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움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
- ⑤ 분리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합일을 추구하는 욕망을 지닐 수 없다.

[25년(10월)교육청 4번]

6.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6)

: 성관계는 성인 간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상호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조건 외에 성관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제약은 없습니다.

을: 성관계에서 자율성의 원칙과 해약 금지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혼한 부부 간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갑: 물론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의 성인들도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입니다.

을: 성관계는 단지 사적 자유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우며 이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 ① 개인이 지니는 성적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② 성관계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
- ③ 부부 사이의 성관계만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 ④ 자발적 동의는 성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가?
- ⑤ 결혼은 성관계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인가?

[26년 수능 5번]

7.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7)

욕망은 고독의 불안, 허전함, 정복하려는 욕망에 의해서도 자극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성적 욕망은 사랑의 관념과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결론에 빠지기 쉽다.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 자극되지 않으면 육체적 결합은 일시적 의미 이상의 결합이 결코 아니다. 사랑 없는 육체적 결합은 서로를 이전과 같이 남남으로 멀어지게 하며, 서로 부끄럽게 만들거나, 심지어 서로 혐오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 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어떠한 욕망도 추구할 수 없다.
- ② 성적 욕망을 동반한 육체적 관계는 사랑에서 비롯될 수 없다.
- ③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적 관계는 지속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④ 성적 욕망과 사랑의 관념이 결부된 상태로는 타인과 결합할 수 없다.
- ⑤ 불안에서 비롯된 육체적 결합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 수는 없다.

1)

**정답 3**

6. [출제의도] 사랑과 성에 대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입장을 비교한다.

(가)는 자유주의 입장이고, (나)는 보수주의 입장이다. (나)는 성적 관계가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므로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2)

**6. [ ] 사랑에 대한 프롬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2**

그림의 강연자는 프롬이다. 프롬은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프롬은 사랑이 사랑받는 이의 성장과 발전에 참여하는 능동적 활동이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1.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보수주의 관점, (나)는 중도주의 관점이다. ⑤ 보수주의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본다. 중도주의는 상호 간 합의와 사랑이 전제된 성적 관계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본다. 보수주의와 중도주의는 모두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격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보수주의는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② 보수주의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③ 중도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성적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 ④ 중도주의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가 있다 해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

4)

**[출제의도] 사랑에 대한 프롬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⑤**

그림의 강연자는 프롬이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보았다.

사랑은 두려움이나 외경에 근거한 존경으로부터 비롯된다.

- ②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때 완성된다.
- ③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위한 선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자유를 토대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다.
- ⑤ 사랑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5)

**6. 프롬의 사랑의 의미 이해 정답 W**

해설 : 가상 편지는 프롬의 주장이다. 프롬은 인간은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만 분리와 고립이라는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움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프롬은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라고 보고,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프롬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의 합일도 가능하며, 그러한 합일을 사랑의 미성숙한 형태라고 보았다. ③ 프롬은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며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프롬은 분리와 고립 상태에 처한 인간은 이를 극복하고자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6)

4. [출제의도] 사랑과 성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비교한다.

[정답] ⑤

같은 결혼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약하는 것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보고, 이른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성관계의 도덕적 정당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7)

**5.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해**

정답 해설: 제시문은 프롬의 주장이다. 프롬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된 사랑은 실패한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랑이 기술이라는 점과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성적 욕망은 사랑에 의해 자극될 수 있다.
- ② 성적 관계는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다.
- ④ 성적 욕망과 사랑은 결부될 수 있다.
- ⑤ 사랑 없는 육체적 결합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